

새 정부 공식 출범… 국회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

오늘 낮 12시 국회 로텐더홀 5부 요인 등 참석…선서 위주 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 이양 용산서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 총리 임명 등 내각 인선 착수

제21대 대통령 취임 행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다.

3일 국회 등에 따르면, 정부는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.

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취임식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에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.

새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국무총리, 중앙선거위원회장 등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,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,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.

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어서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.

앞서 새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.

노무현,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, 윤석



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작업자들이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.

연합뉴스

열 전 대통령 모두 취임 첫날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.

공식 임기는 4일 오전 7~9시에 열리는 중앙선거위원회 전제회의에서 선거위원회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부터다.

군정·군령 권한을 포괄하는 '군 통수권'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.

임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 당일 오전 0시를 기해 군 통수권이 새 대통령에게 이양되지만, 이

번에는 선관위의 당선 확정 선언 때부터 임기 개시와 함께 통수권이 자동 이양된다.

합참의장은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는 통신 장비로 새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 이

양 보고와 군사 대비 태세, 북한 동향 정보 등을 보고한다.

새 대통령은 4일 오후엔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요국 인사나 사절단을 접견하거나 이들과 통화할 것으로 보인다.

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,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미·일·중 등 주요국 축하 사절을 접견하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.

새 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.

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사표를 받은 뒤 장관 후보자 발표만 했다. 이어 새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후 일괄 임명권 행사를 제정했다.

한편 서울경찰청은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으로 오전 시간대 현충로와 노들로, 오후 시간대 국회대로가 일부 통제된다고 밝혔다.

서울청은 이 구간 경찰 535명을 배치해 차량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며, 가로변 전광판과 교통방송을 통해 교통상황을 실시간 전파할 예정이다.

경찰은 "부득이 차량 이용 시 통제구간을 확인해 우회해달라"고 당부했다.

서울=김선욱 기자 seonwook.kim@jnilbo.com

투표율 광주 83.9%·전남 83.6%… 전국 1·2위

15대 대선 이후 27년만 가장 높아 남구 84.6%·구례 85.7% 각 '1위'

제21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79.4%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,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최종 투표율이 모두 83%를 넘기며 나란히 전국 1·2위를 기록했다.

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에서 광주 지역 선거인 119만 4471명 중 100만 2166명이 투표해 83.9%의 투표율을 기록했다.

전남에서는 선거인 155만 9431명 중

130만 339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3.6%를 기록,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.

광주·전남의 최종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 대비 각각 4.5%p, 4.2%p 높았다.

이는 역대 치러진 대선 지역별 투표율로 봐도 김대중 대통령이 사상 첫 정권 교체로 이룬 15대 대선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.

1998년 치러진 15대 대선에서 광주·전남의 최종 투표율은 각각 89.9%, 87.3%였다.

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보

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. 당시 광주·전남의 투표율은 각각 81.5%, 81.1%로, 광주는 2.4%p, 전남은 2.5%p 증가한 수치다.

시·군·구 별 투표율의 경우 광주 남구가 84.6%로 가장 높았으며, 동구 84.0%, 북구 83.9%, 광산구 83.8%, 서구 83.4%를 기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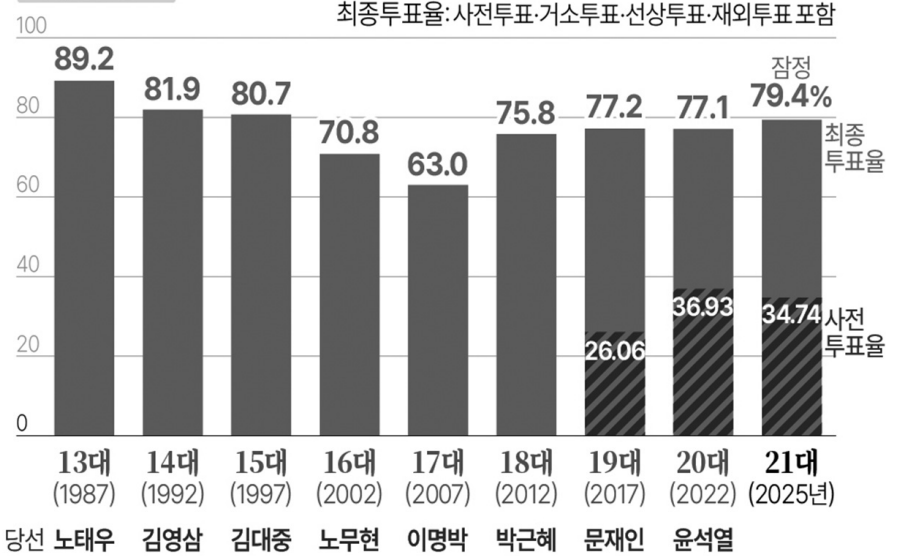
전남에서는 구례군이 85.7%, 완도군 85.5%로 도내 1·2위를 기록했으며, 목포시가 81.5%로 가장 낮았으나 22개 시·군 모두 80%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했다.

오지현 기자

2025대선 역대 대선 투표율

연합뉴스

최종투표율: 사전투표·거소투표·선상투표·재외투표 포함



DK 디케이 주식회사

봄, 공기의 새로운 정의
공간을 빛내는 선택

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
이제 걱정 없이,
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.

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
디케이 공기청정기·살균기

www.e-dk.co.kr

판매 및 A/S 문의 1544-1154

